



참여와 협력으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보절교육

<가정통신문>

[보건소식 ④] 학부모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성평등 교육◎

교무실 634-4049

행정실 634-4970

<http://www.bojeol.e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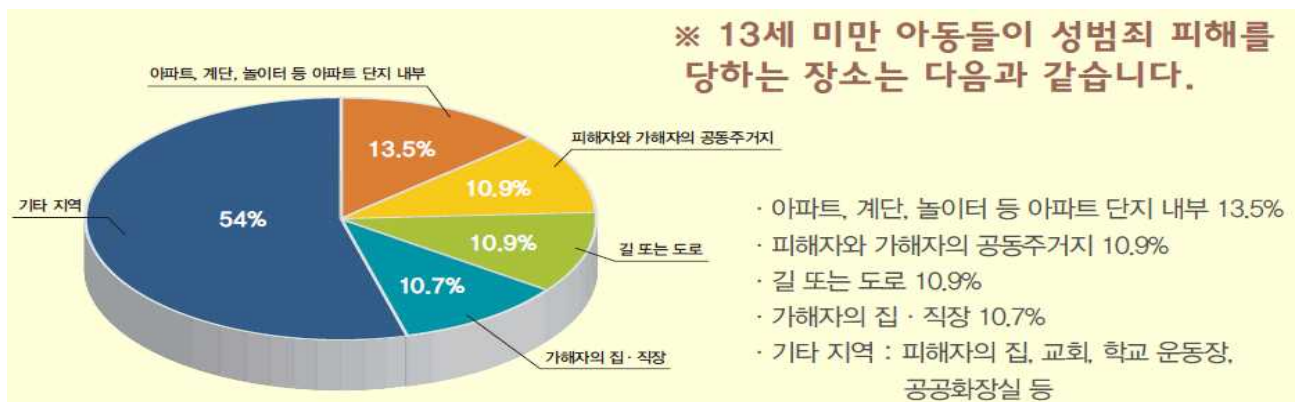
우리의 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집, 학교 등 아동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

2 성폭력의 발생장소(통계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3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성희롱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밴드로 보내기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기
- 다.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리기
- 라.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기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4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 가. 자녀들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도록 나무라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도 유심히 봅니다.
- 라.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마.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 바. 어른이 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 사. 성(性)적인 것은 더럽거나 속되며 죄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 뒷면에 계속

5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세요.
 - 성범죄알림e사이트에 접속(<http://sexoffender.go.kr>)하여 성범죄자 현황 파악, 등하굣길 함께 걸어보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지하실, 옥상, 주차장 등에 혼자 가지 않기
- 나.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주세요.
- 다. 호의를 베풀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 둘이 집에 있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자주 말해주세요.
- 라.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 마.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폭력 발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부모님께 말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 바. 자녀들이 평소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살펴주세요.
- 사.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아.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청할 곳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익혀주세요.
성폭력과 관련하여 정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6 성폭력 피해 시 대처는 이렇게

- 가.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 나. 가해자의 키, 인상, 몸의 생김새, 말 행동의 특성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둡니다.
- 다. 몸을 씻지 않고, 속옷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라.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마. 자녀가 자발적으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면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줍니다.
- 바.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합니다.
- 사.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녀를 관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아. 자녀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피해자는 물론 가족 포함 심리치료 진행 필요
- 자.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48시간 이내,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안에 사용)

7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 여성 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구조·보호, 상담
- 나. 해바라기 아동센터(☎063-246-1375)
- 다. ONE-STOP 지원센터(전북대학교병원 ☎063-278-0117)
- ◆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성범죄자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
- ◆ 학교폭력·성폭력신고:112, 117 <http://www.safe182.go.kr/index.do>,
- ◆ 우리 학교에서는 성(性)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8 내 자녀 성폭력 예방 교육

1.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급상황을 가장할 때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보다 다른 어른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른들께 부탁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3. 친절하게 다가올 때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4. 선물을 이용할 때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5. 아는 사람인 척 할 때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6. 혼자 있을 때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7. 친구끼리 장난으로 생식기를 만질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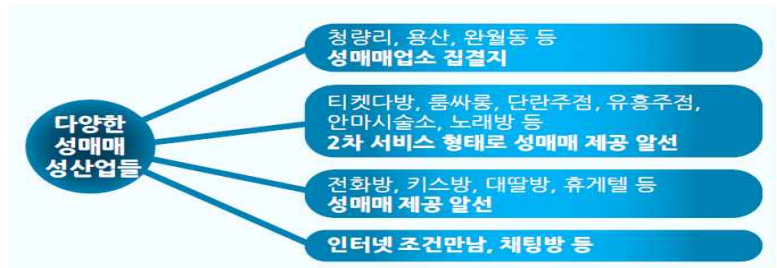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교육청제공>

9

성매매!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소중한 인권입니다.

가. 성매매, 정확히 무엇인가요?

⇒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침해입니다. 성매매는 돈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고 함부로 그 여성에게 해도 된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인권침해)입니다.



나. 성매매는 불법! 알고 계셨어요?

⇒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 따라서 다음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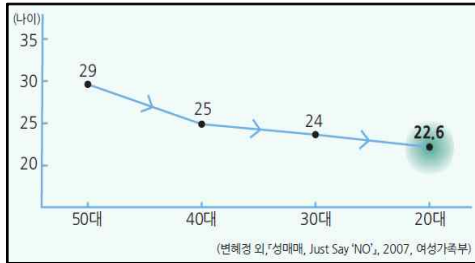
- ① 선불금 등의 금품이나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 ②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 ③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④ 청소년의 몸과 성적 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 왜 반대하나요?

⇒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유사한 차별과 폭력을 허락한다는 의미죠.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라. 남성의 최초 성구매 연령이 낮아진다면요?

⇒ 최초 성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구매 동기는 우연한 기회나 호기심에서, 접대 관행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의도적(적극적) 성구매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구매를 집단적으로 하는 술(놀이) 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마. 성구매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처벌받나요?

⇒ 성구매자는 분명히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②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
- ③ **청소년 대상 성구매는 성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만 해도 처벌됩니다.**

⇒ 하지만 명심할 것은 '성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처벌보다 더한 평생의 오점과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것이죠.

바. 성매매 여성, 왜 피해자가 되나요?

⇒ 선불금 같은 빚으로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요.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입니다.

사.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죠! 성매매 여성이 나빠요.

⇒ 성매매 여성 개인을 탓하기 전에 왜 그녀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생각해봐요.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 광고가 넘쳐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여성도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성의식 때문이죠.

아. 청소년이 성매매 안하려면?

⇒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가출 후 돈이 필요해서, 호기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자. 나는 성매매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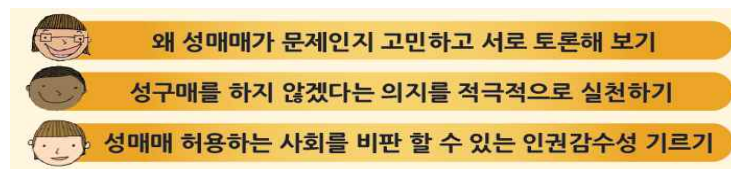
⇒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팔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지나가다가 놀기 위해 한 번쯤 업소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업상의 이로움을 위해 접대할 때 여자를 부른 적이 있었다면... 누구나 관련 있습니다.



차. 성매매 반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21」

미래의 인간상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아이, 이런 가족 문화 속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1 성차별이란?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① 남자는 씹씹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②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2 성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③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양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3 성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 남자는 중요하고, 씹씹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 혹시 어른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못해도 된다.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4 가정 내 성평등은 이렇게

가.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나.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해주세요.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2020. 7. 29.

보 절 초 등 학 교 장